

완도군, 일자리 1만명 창출 난대수목원 조성 밑그림

산림청·전남도·완도군 용역 착수
난대림 35% 소유 지역 특성 반영
자생 수종 중심 5대 랜드마크 조성
2031년 개원 1조원 부가가치 유발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지역 대표 수목원으로 거듭나기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수목원 정상 개원시 1만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보고회는 지난 달 30일 전남도 산림연구원에서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용역사,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본설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 규모와 배치,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 등을 비교·분석해 최적 안을 도면화하는 절차로 향후 진행될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다.

이번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는 전국 난대림 중 35%를 차지하는 완도

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진과 자문단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기본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목표로 추진한다.

국비 1478억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수목원 부지(381ha)에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난대 식물 주제원', 수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레이크 가든 센터', 난대 숲과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다양한 눈높이에서 난대 원시림을 느낄 수 있는 '트리 탑 테크로드', 정상부까지 이동하며 난대림을 감상할 수 있는 '모노레일' 등 5대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담았다.

수목원 개원(2031년 예정) 시 연간 수십만 명의 관람객과 1조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1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와 연계해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도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



지난달 30일 전남산림연구원에서 산림청·전남도·완도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완도군 제공

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국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그동안 실무협의회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난·아열대 수집과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난·아열대 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타 수목원과 차별화

된 난대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재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완도군이 난대림의 보고라 불리는 만큼 우수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상록의 경관적인 강점을 살리고자 모노레일, 수변 경관이 아름다운 레이크 가든 센터 설치 등을 통해 명품 난대 수목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여수시, 13일 벼룩시장 연다 재활용 자원 팔찌 만들기 등

여수시는 오는 13일 일요일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여수 벼룩시장'을 개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벼룩시장은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10월 둘째 주 일요일인 13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벼룩시장을 통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중고 의류·도서·장난감·잡화·가전제품 등을 자유롭게 판매·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행사 후 남은 물품과 수익금은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새 상품이나 음식물, 의약품 등은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날 재활용 자원을 이용한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 직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 함평군, 협업 중요성 강조

함평군이 지난 8일 함평엑스포공원 주 제영상관에서 공직자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2024년 전 직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Design Thinking'을 주제로 김민선(위드드림 컨설트 대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정부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혁신 사고의 필수 역량 함양과 함께, 타인과의 공감능을 통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 김민선 강사는 '혁신'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관점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공직자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유용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혁신 교육을 통해 급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함평군 공무원의 능동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여수문수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4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운동회를 열었다.

여수시 제공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의 날 맞이 체육행사

여수문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봉춘)이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문수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청춘불패 문수운동회를 개최했다.

10일 여수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청춘불패 문수운동회 노인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의 건강 도모와 화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삼남석유화학 한사랑봉사단과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여천NCC(주) 등 후원과 한영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봉사 동아리 '고마운 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고고장구 난타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1부 기념식에서는 중앙새마을금고 봉사단과 삼남석유화학 한사랑봉사단 외 5개 봉사단체에 운영위원장상과 기

관장상이 수여됐다.

2부에서는 어르신들과의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지구를 옮겨라', '풍선기둥 쌓기', '돼지를 몰아라' 등 각종 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봉춘 관장은 "모두가 행복한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 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정남진시네마, 작은영화관 기획전

14일부터 무료 상영

2024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장흥군 정남진시네마에서 개최된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에는 다양한 장르의 14편의 영화가 30회 상영되고 영화와 연

계된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동안 4회 진행된다.

상영작에는 한국인 최초 오스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미나리', 일제강점기 시대 운동주 시인의 치열했던 삶을 보여주는 '동주', '명몽이', '남매의 여름밤', '막걸 리가 알려줄거야' 등이 예정되어 있다.

연계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술공연과 풍선아트가 19일 '용감한 돌고래 벨루와 비닷속 친구들(더

빙)'과, '로보카폴리와 함께 배우는 안전 이야기' 영화 상영 후 진행된다.

20일 '아기상어 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더빙)', '로보카폴리와 함께 배우는 소방안전 이야기' 영화 상영 전에도 같은 공연이 열린다.

이번 기획전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상영작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 현장발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정남진시네마(061-862-7053)로 하면 된다.영화 상영시간표는 장흥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섬진강 보도교 설치 본격화 구례군, 2026년 완공 목표

구례군은 섬진강에 새로운 보도교를 설치해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보도교는 2020년 집중 호우로 철거된 옛 문척교 자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11월 착공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옛 문척교 철거 이후 섬진강을 건너는 주요 통로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일상적인 보행과 자전거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새 보도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새 보도교는 총길이 470m, 폭 4.5m 규모로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차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량을 건설할 계획으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섬진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군은 지난 9월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라 자문위원회와 하천국장 등이 참석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점용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보도교가 완공되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역 발전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올해의 봉사왕' 후보자 추천 광양시, 18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지역사회 발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봉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2024년 올해의 봉사왕'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선정 자격요건은 △공고일 8일 기준 현재까지 5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자원봉사 경력 5년 이상이고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상 5000시간 이상 봉사한 자 △올해 자원봉사 시간 200시간 이상인 자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다.

2024년 올해의 봉사왕'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18일 오후 6시까지다.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하거나 광양시자원봉사센터 이메일(gy1365@korea.kr)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광양시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후보자의 공적 기간 및 활동 실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의 봉사왕 선발인원은 1명이다. 광양시자원봉사센터의 기본 요건심사와 광양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자가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11월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의 봉사왕'은 자원봉사나눔터(커뮤니티센터 7층)의 '명예로운 봉사자'로 게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광양시 자원봉사센터(061-797-2779·278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